

농업 동향

농식품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안) 발표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5,462억 원 증액된 15조 4,10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수준이며,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이차보전(21억 원)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한 축산·원예·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의 실질적인 용자규모(2,125억 원)를 감안하면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2조 7,348억 원,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 3,513억 원, 식품업 분야에 6,887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2012년 예산 및 기금(안)은 FTA 등에 대응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수산물 물가·기후변화·축산업선진화 등 당면현안 해결 및 농식품 분야 미래준비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농수산물 물가 및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도 증액되었다. 둘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투자 및 농어업 재해보험을 확충하였고, 가축질병관리 등 축산업 선진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농식품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미래 전략산업인 종자·생명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넷째,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한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저수지 둑 높이기, 생산기반 조성 등 농업 생산기반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자본출자 3조 원+현물출자 1조 원” 방식으로 자본금 4조 원 규모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200-200 발표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은 2017년까지 식품시장규모를 245조 원, 농식품 수출을 200억 불, 식품산업 고용을 20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산업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식품 R&D를 확대해 식품기술을 선진국 대비 85% 수준으로 높이고, 2015년까지 연구·수출지향적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식품모태펀드를 확대하고, 농수산식품기업 윈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해외곡물 조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품목을 산업화하고,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융합을 추진한다. 육가공·유가공·수산물·곡물·인삼·채소 6대 분야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을 위해 사이버 거래소 활성화와 외식산업을 육성한다.

셋째,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농식품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고, 식품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한식세계화 역량을 집중하여 2017년까지 해외 한식당 2만 여 개를 육성하고, 전통발효식품을 산업화하고, 기능성 식품을 4조 원 시장으로 육성한다.

넷째,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현재 18종의 인증제도를 2013년까지 8종으로 통·폐합하고, 2012년부터 공통 인증 로고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한다. 또한 ‘농어장에서 식탁까지’ 사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을 확대한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해대비 내년 농어업재해보험 예산 확대 반영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상기후에 의해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재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원리를 이용해 농어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농어업재해보험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2년도에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11개 품목을 신규 도입해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2년 6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2011년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인 9개 품목을 전국으로 확대해 본 사업품목을 3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가입률을 높이고자 농어업재해보험 국고예산을 지난해보다 14.7% 증액한 1,567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대상품목을 신규 시범사업으로 5개 추가해 35개로 확대하고, 전국 판매대상 품목은 8개 추가해 2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2006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과수 7개 품목에 대한 목표가입률을 지난해보다 4.0%p 상향조정하여 44.0%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벼 재해보험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 수혜가 가능하게 되었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대상품목을 신규 시범사업으로 1개(오소리) 추가하여 16개로 확대하고, 목표가입률을 금년보다 2.4%p 높여 56.5%로 상향 조정하였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보험대상품목을 신규 시범사업으로 5개 추가하여 10개로 확대하고, 목표 가입률을 9.0%p 높여 29.0%로 상향 조정하였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지역개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종 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 재정 지원의 효과성 제고 및 대국민 소통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동 시스템은 2000년 이후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54개 사업, 23천여 사업지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리정보(GIS)를 활용 지도상에 구현하여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분석과 소통이 가능한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시군별 수작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사업 계획서 작성, 신청 및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이 전산화 되어 행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1단계로 가급적 연내에 지역개발 사업의 업무 재설계/정보화 전략계획(BPR/ISP) 구축 연구를 마무리하고 2단계로 본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 시스템이 향후 농어촌 공간에 대한 종합 정보 서비스로 확대·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스템 구축 전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선행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 시스템 개발을 통해 사업의 신속한 실패파악 및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촉진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업 참여 확대, 국민들의 관심 증가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Golden seed 프로젝트 추진

‘골든씨드(Golden seed) 프로젝트’는 지난 3월에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결과 글로벌 수출 중자시장 진출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B/C 0.95)을 인정받았으며 기술적 타당성과 정책적인 일관성 및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 높게 평가받았다.

‘Golden seed 프로젝트’는 ‘금값보다 비싼 종자(Golden seed)’를 개발해 2020년 종자수출 2억 달러를 달성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이다. 2012년 품종보호제도(UPOV) 전면 시행, 종자산업의 급속한 성장, 국내 종자산업 육성 및 다국적 종자기업 대응 등의 관점에서 추진 필요성을 크게 인정받았다. 본 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수출전략 10개 품목과 주요 수입종자 9개 품목에 대한 종자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수입대체 품목들도 사업 추진 5년 후에는 세계시장을 겨냥해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부는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세계적인 종자브랜드 개발로 국가 경쟁력 제고, 바이오 경제 시대의 신산업 창출의 원동력 제공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기업의 국내 종자기업 인수 합병에 따라 위축되어 있는 국내 종자 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품종보호제도(UPOV) 시행으로 발생하는 종자로 열티 및 수입대체효과 약 7,970억 원(향후 10년간 발생 추정치)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정부지원 예산의 총규모는 10년간(2012~2021) 3,985억 원이며 2012년 요구액은 총 388억 원이다. 주관부처인 농식품부는 2012년 상반기 사업단 출범을 위해 운영본부 설치 등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년 상반기 농지 6,400ha 타용도로 전용

2011년 상반기에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6,452ha이다. 이는 2010년 상반기(10,898ha)에 비해 40.8%(4,446ha) 감소한 규모이다. 최근 5년 사이 연간 농지 전용면적은 연평균 2만ha이고, 상

반기 평균 농지 전용면적은 1만ha 수준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1년 상반기의 농지전용이 2010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것은 주로 산업단지 조성 등 공장설치, 주거시설 용도의 택지개발을 위한 농지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전용된 용도별로 보면,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에 3,083ha, 산업단지 등 공장시설에 776ha가 전용되어 공공시설과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3,859ha로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60%를 차지했다. 2011년 상반기 광·공업시설은 산업단지 지정 추세가 둔화되면서 농지전용 면적은 68% 감소했다. 택지 등 주거시설도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농지전용면적은 66% 감소했다. 2011년 상반기 농업용 시설은 간이저온저장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제도개선 등으로 농지전용 면적이 18% 감소했다. 그밖에 마을회관, 근린생활시설, 관광·운동시설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한편, 2011년 상반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전용은 1,404ha로 전체 농지전용면적이 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축장 36개로 통폐합, 대형 가공·유통업체 육성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자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영세도축장 등을 통폐합하고, 도축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경쟁력을 갖춘 대형 가공·유통업체(Packer)로 발전하도록 정책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첫째, 국내 도축산업을 선도해 나갈 거점도축장을 선정하여 도축·가공·유통을 모두 연계한 경쟁력을 갖춘 축산 통합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도축장의 위생수준·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능력 등에 관한 평가기

준을 마련하고, 금년 9월 '거점도축장 선정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금년도분 거점도축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5년 이후에는 전체 도축장 수가 36개 내외로 운영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둘째, 도축장에서 식육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위생 점검을 보다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한다. 위생수준이 열악한 도축장은 수시로 기동단속을 벌이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평가결과 위생기준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영업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할 계획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농협사업구조개편과 연계해 덴마크의 데니쉬 크라운과 같은 생산자단체형 가공·유통주체를 육성해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농협의 안심축산을 대형 패커로 육성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수평적인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가는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전담하고, 지역축협 등은 산지조직화의 주체로 축산물 공급을 전담하며, 안심축산은 유통과 판매 등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확정·발표

농림수산식품부는 전통주 등 우리 술을 고부가가치 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기반조성, 우리 술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화, 농업·한식과의 동반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술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술 제조업체 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술 원료 구매자금과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애로기술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강화, 술 원료

의 품종 개발 확대 및 실용화, 술 제조, 연구 등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도록 하였다.

둘째, 우리 술의 경쟁력 제고와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주 홍보관 및 전문판매점의 운영을 지원토록 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 입점업체 수 확대 등 전통주 통신판매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술 품평회를 매년 개최하여 우리 술의 품질향상 및 명품주를 선발·육성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술 특성과 산업환경에 맞도록 등급화 하여 관리하는 등 품질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우리 술과 농업·한식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다. 쌀 등 술 제조원료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술 산업과 우리 농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 신품종을 대상으로 양조적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 및 술 제조업체에 알릴 계획이다. 술 원료 주산지를 중심으로 전통주 클러스터 특화 사업을 확대, 그 지방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특산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제조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지리적표시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내산 원료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열악한 환경 극복 도움주는 벼 유전자 발견 - 농진청, 작물의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기작 밝혀 -

가뭄이나 염분 등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새로운 벼 유전자가 발견됐다.

농촌진흥청은 작물이 환경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해 생산하는 호르몬인 앱시스산(ABA·abscisic acid)을 인식해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유전자를 증가하도록 하는 'OsPYL'이란 유전자를 벼에서 찾아냈다고 밝혔다.

또한 벼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ABA가 생산되면, 이를 OsPYL 유전자가 인식해 생존에 필요한 유전자군의 발현을 유도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도 처음으로 구명했다.

실제 OsPYL 유전자의 가뭄 저항성 실험 결과, OsPYL 유전자가 과발현된 형질전환 벼에서 가뭄 저항성 유전자인 DREB 등의 발현이 증가한 것을 확인됐다.

특히, 인공 가뭄 조건(5일 동안 건조)을 처리한 후 재관수시 일반 벼는 완전히 시들어 말라죽는데 반해 OsPYL 유전자가 과발현된 형질전환 벼는 원래 상태를 유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견한 OsPYL 유전자에 대해 지난 9월 특허 출원했으며, 연구결과는 식물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실험식물학회지(Journal of Experimental Botany)」로부터 게재를 승인받아 내년 초 게재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신작물개발과 연구사는 “이번 OsPYL 유전자의 발견은 가뭄이나 고염 등의 불량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작물 개발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OsPYL 유전자를 다양한 신작물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농촌진흥청)

‘맥주보리’ 재배지가 넓어진다.

- 추위에 강하고 맥주 품질 우수한 맥주보리 ‘광맥’ 개발 -

농촌진흥청은 최근 자주 일어나는 겨울철 이상저온에도 재배가 안정적이고 원맥과 맥아 품질이 우수한 맥주보리 신품종 ‘광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광맥’은 다양한 재배지에서 고품질의 국산 원맥 생산이 가능하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맥주보리 ‘광맥’은 가을 파종 적응성이 높아 월동 후 갑작스런 고온이 유지되더라도 불시에 이삭이 나오는 피해가 적으며, 키는 80cm로 쓰러짐에 강하고, 수량이 5.2ton/ha으로 높다.

천알의 무게는 42g으로 곡립이 크며 맥아 제조시 발아 안정성이 높고, 효소 역가가 우수한 맥아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맥주를 만들 때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광맥’은 기존 품종과는 다른 특유의 향이 있어 이를 이용한 국산맥주의 다양화와 차별화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품종으로 기대된다.

‘광맥’은 현재 맥주보리 주재배지역인 전남, 경남과 제주 외에도 앞으로 전북 지역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올해 군산 옥구 지역에 시범포를 조성해 수량 등 지역적응성과 품질 특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맥’의 종자 공급은 품종보호 출원과 보급종 생산 등의 과정에 따라 2~3년 후에 농가에 보급과 재배가 가능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맥류사료작물과장은 “앞으로도 국산 맥주보리의 품질 고급화와 재해에 안전하고 다수성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특화 맥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소비층을 확보해 간다면 맥주보리 강소농 육성은 물론 제 2의 보리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농촌진흥청)

내년 벼 ‘잡초방제’ 위해 지금 해야 할 것

- 성공적인 논 잡초방제 위해 제초제 선택 시기 바뀌어 -

농촌진흥청은 논 효과적 잡초방제를 위해서 제초제 선택 시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제초제를 그해 구입해 살포했으나, 내년에 잡초를 성공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올해 수확기까지 많이 생존하고 있는 잡초에 효과적인 제초제를 선택해야 한다.

최근에는 논에서 물달개비, 올챙이고랭이뿐만 아니라 피까지 11개 초종의 제초제 저항성 잡초들이 매우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데, 이들 저항성 잡초들은 종자 생산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초종별로 효과적인 제초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를 매년 감수해야 한다. 저항성 잡초들 중에서 벼 수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잡초 초종별 개체 당 종자생산량은 물달개비 3,000~10,000개, 올챙이고랭이 1,000~3,000개,

그리고 피의 경우는 3,000개 정도이기 때문에 수확기까지 이들 잡초가 생존하면 다음해는 수십배 이상 높은 밀도로 발생한다.

농진청 작물환경과 박태선 연구관은 “지금까지는 제초제 선택은 그해 이앙 후에 결정해 구입했으나, 성공적인 잡초방제를 위해서는 전년도 수확기에 많이 생존하고 있는 잡초 초종별로 효과적인 제초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벼 수확기에 물달개비와 올챙이고랭이가 많이 생존하고 있으면 벤조비싸이크론이나 브로모부타이드 성분이 혼합된 제초제를 선택해야 하며, 피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논은 대체적으로 저항성 물달개비나 올챙이고랭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피에 효과적인 메페나셀과 물달개비 등에 효과적인 벤조비싸이크론 등이 동시에 혼합된 제초제를 선택해야 한다.

최근 남부지역에서부터 벼풀이나 여뀌바늘이 제초제에 저항성화 되어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잡초가 수확기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논은 카펜트라존 성분이 혼합된 제초제를 선택해 이듬해 살포해야 한다. 벼 수확기에 다년생 잡초인 올방개나 많이 발생하면 콤바인 작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듬해에는 훨씬 더 높은 밀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올방개에 효과적인 벤푸러세이트 성분이 혼합된 제초제를 선택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작물환경과장은 “농사는 잡초와의 싸움이라고 할 만큼 잡초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 논에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피, 물달개비 등을 포함한 문제 잡초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초종에 맞는 제초제를 선택하고 살포해야 하는데, 초종별 우수 약제를 선별해 안전농사와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농촌진흥청)

가축 몸무게 늘리고, 분뇨냄새 줄이고 - 농진청, 효모균 이용 친환경 생균제·악취감소제 개발 -

농촌진흥청은 가축의 몸무게를 늘려주고 분뇨 악취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개발해 친환경 생균제와 악취감소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미생물은 우리나라 토양에서 분리한 피치아(Pichia)속 효모균의 일종으로 가축의 성장 향상과 축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스 제거에 효과가 뛰어나다.

생균제는 이 효모균을 배양해 만든 것으로, 사료와 함께 섞어 가축에게 먹이면 가축의 몸무게 향상은 물론 장내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해 소화율을 향상시키고 소화기 질병을 막아준다.

또한 악취감소제는 이 효모균 배양액에 솔잎 분말과 대나무잎 분말을 혼합해 제조한 것으로 분뇨 등 축산폐기물에서 나오는 악취가스를 감소시킨다.

실제 돼지를 대상으로 생균제를 사료에 혼합해 먹이고 악취감소제를 축산폐기물에 처리한 결과, 돼지의 체중이 7.4% 증가했으며, 축산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악취가스 중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민가스를 9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생균제와 악취감소제에 대해 지난해 12월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팀 연구사는 “이번에 개발한 미생물제는 축산에 필요한 항생제 대체물질로써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축산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농촌진흥청)